



주민들에게 환영받은 도간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오호(五胡)에게 중원지역은 내주고 남쪽에 진(晉)을 부흥시킨 동진(東晉)은 여전히 어려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 겹겹이면 군사를 가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토벌하느라 또 힘을 쏟아야 했다.

그런데, 동진의 명제(明帝) 사마소(司馬紹)가 등극하고 3년 되는 해(325년) 5월에 도간(陶侃)을 정서(征西)대장군·도독형상(都督荊·湘·雍·梁四州諸軍事)·형주(荊州)사로 삼으니 형주의 남자나 여자가 서로 경하하였다.

도간은 정서대장군이 되어 실제적으로는 형주와 상주, 응주, 양주 등 네 주(州)

의 군사를 지휘하게 하고, 형주의 행정직임을 맡게 한 것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기뻐한 것이다.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가 새로 임명되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은 시절이었다. 보통 관리란 수탈하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소 닭 쳐다보듯 하였지만 이 경우만은 아주 특별한 것이다. 그도 그럴 이유가 있었다.

우선 도간은 성품이 총명하고 민첩하며 공손하고 부지런하여 온종일 다리를 오므리고 콧꿨게 앉아서 대장군부의 여러 가지 일을 살펴보니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니 조금도 한가한 틈이 없었다. 또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위대하신 우(禹) 임금은 성인(聖人)인데도 촌음(寸陰)을 아꼈으니, 보통사람들은 응당 분초를 아껴야 할 것이오"

그래서 혹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 가운데 농담을 하며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세상에서 통달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들이 사용하던 술잔과 도박기구를 가져오게 하여 이것들을 모두 강물에 집어던졌다.

그리고 장교와 관리들을 바로 회초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군자는 마땅히 그

■ 등산하면서 역사 속으로

내장산(內藏山)

■ 향촌 권 오 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은 전라북도 정주시 정읍군 순창군과 전라남도 장성군에 걸쳐 있으며 노령산맥의 중간 지점이고 그 정상은 해발 763m나 되는 서해안의 거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산은 내장사 백양사를 품에 안고 있으며 산봉우리는 서래봉 망해봉 신성봉 장군봉 등의 영봉이 열 지어져 있고 금선폭포가 세차게 떨어지고 있다.

내장사는 백양사(白羊寺)에 속하는 작은 절로서 6.25사변 때에 불탄 것을 1958년에 일부 재건하였다. 백양사는 632년(백제무왕33년)에 환어(玄婁)가 창건하였다.

내장산 등산은 1986년 10월 19일자에 김인숙 회원과 운동화를 신고 등산길을 밟았으나 이제 1999년 10월 28일자에 다시 내장산을 등산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찾았다.

종전 내장산 입구에는 대형 버스주차장이 한 장소가 있었으나 묘사이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2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제1주차장과 그리 멀지 않는 장소에 있다.

그래서 하자 후 버스주차장을 잘 확인하여 놓지 않으면 승차할 때에 낭패를 보기기 십상이다.

그 버스에서 내린 우리 회원 일행은 내장산까지 잘 정비된 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

약 4km를 걸어야 한다. 양쪽 길가에는 단풍나무와 감나무가 즐지어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내장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늘 가을 석양에 홍엽(紅葉)의 일사귀는 짙은 주홍색 물감을 뿌린듯하다. 가을 소슬바람에 바야흐로 단풍은 내장산에서 불타고 있다.

어느 회원의 제안에 따라 내장산까지 아직 멀었으니 중도에서 쉬면서 걸자 하기에 노변의 노천관광지에서 잠시 쉬는 동안 차를 마시는 분 그리고 그곳 민속주를 시음하는 분들이 많았다.

동행한 이강식(李康植) 형과 함께 동동주와 국수로 점심을 때우고 내장산을 거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땀이 온몸을 적신다.



점심때 마신 동동주의 영향이 아닌지 생각난다. 바위와 돌길이 이어진다. 흐르는 계곡물은 속세의 심신을 씻어주는 듯하다. 또 한 번 된다. 이제야 양사언 선생의 시조한 수가 생각난다.

‘오르고 또 오르며 못 오르지 않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되만 높다 하더리’ 열심히 이형(李亨)과 함께 장군봉에 오르고 보니 주위의 산세와 지형이 모두 비행을 타고 내려다보는 듯 하다. 태고(太古)의 천지 창조 모습에 누가 이렇게 배열하였을까! 까마득한 산줄기여! 굽이굽이 치는 개울이 흐른다.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여초창생은 그 얼마나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살 것인가!

모든 것을 잊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서양의 어느 철학자가 생각난다. 땀을 식히고 다시 하산 길에 다가선다.

산 입구에 내려와서 좌정한 가게에서 녹두전과 막걸리 맛은 또한 별미였다. 고속도로에 어두움이 깔린 상경하는 버스 속에서 메들리 송에 맞추어 일행 중의 초등학교 3년짜리의 남매가 요사히 유행하는 테크노댄스를 추어 정말 한층 더 흥겨운 재미를 회원들에게 안겨 주었다.

서울 도착 밤 10시 40분 이제 산악회원의 안착을 인식하고 다음 산행 계획을 예고하였다. 내장산에 이르는 길은 호남고속도로 정읍 IC에서 우회전하여 우회도로로 20번 국도로 진입하여 수북목을 거쳐 49번지방도로 내장산 입구에 이르면 된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의 내장산의 등산 추억을 되새기면서 내일을 위하여 오늘 잡자리에 든다. 오늘의 산행이 무사했음을 감사하며.

기행문

先進 西部유럽 탐訪

■ 권 계 동 (본원상임부총재)

(지난호에 이어서)

4. 유적이 많은 이탈리아

스위스 가이드 오경화와 작별을 하고 우리들끼리 사모니를 출발하여 몽블랑 터널을 통과하여 이탈리아로 갔다.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이고 지중해의 중앙부에 있으며 5,747만 명(로마는 280만 명)의 인구를 남북이 1,200Km인 긴 장화 모양의 나라이다.

종교는 카톨릭(90%), 소수의 개신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이며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고온건조하고 겨울은 온난하고 다습하다고 하였다. 통화 단위는 유로(Euro)로 2002년 3월부터 리라 대신 전면 사용되었다. 주화는 유로센트 그리고 1, 2 유로 8종이며 지폐는 유로 7가지가 있으며 구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 지폐의 종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있었다. 고대의 화려한 전통과 유물을 간직하며 현대의 최첨단 패션과 유행을 잘 융합시키고 있는 나라이다.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운 곳으로 쥘리어스 씨저 등이 활약한데 이어 BC 27년 아우구스투스 제왕위에 오른 것으로 시작이 된다. 로마 제국은 그 뒤 아프리카 북부는 물론이요 해 부유한 북부 이탈리아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룩했다. 4세기말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세계의 종교로 전파시켰다고 한다.

15세기에는 높아진 시민 의식과 귀족들의 비호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으며 5세기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분열된 국도는 1861년에 통일을 보았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승전국과 패전국의 자리에 서게 됐으며 2차 세계대전 뒤에는 자동차 공업, 패션산업, 관광산업 등으로 경제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공업이 발달해 부유한 북부 이탈리아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주를 이루는 가난한 남부 이탈리아가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문명의 요람지로서 옛날부터 트루스트, 그리스, 로마 등의 발자취가 어울린 곳이다.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고 고유의 전통과 풍습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라 할 만큼 풍부한 관광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는 로마제국이 북부 유럽의 게르만족에게 멸망된 후 여러 곳에서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 예로 베니스 왕국, 나폴리 왕국, 시칠리아 왕국, 제노아 왕국, 밀라노 왕국 등이 있다고 한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며 중소기업의 지역별 특징을 따라 발달된 것이 특징이며 주요 발달 업종은 자동차, 조선, 화학, 무기 산업이다. 또한 가죽제품을 포함한 패션산업과 의류 산업이 발달되었다고 한다. 수도는 로마이나 경제적인 수도는 모든 금융, 정보, 교통이 집중되어있는 밀라노라 할 수 있다고 한다. 유럽대륙으로부터 지중해 쪽으로 긴 장화 모양을 하고 있는 길이 약 1,170km의

의 위엄 있는 모습을 올바르게 하여야 하는데, 어찌 머리를 산발하고 맨발로 있으면서 스스로 넓게 통달하였다고 말한단 말이나?”

또 떡을 짓을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 만약에 힘들어서 얻은 것이라면 비록 미미할 지라도 반드시 즐거워하면서 위로하며 그 세 배를 내려주었다.

만약에 이치에 맞지 않게 얻은 것이라면 절실하고 엄하게 육하며 그 떡을 짓을 돌려보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아직 덜 익은 벼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도간이 물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그 사람이 말하였다. “길을 지나오다가 보여서 그냥 그것을 뜯었습니다.”도간이 크게 화가 나서 말하였다. “나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놀이 삼아 다른 사람의 벼를 도적질하는 것이냐?” 그를 잡아서 채찍으로 매질하였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농사짓는 일에 부지런하였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풍족하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배를 만드는데, 다듬고 나서 떨어지는 나무 조각과 대나무 쪼가리가 있자 도간이 모두 이것을 기록하여 관리하게 하니 사람들은 모두 그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서 정월 모임이 있었는데, 많은 눈이 왔다가 녹는 바람에 창사 앞이 질퍽하게 되자 그 나무부스러기를 땅에 깔게 하였다. 다시 20년 후에 동진의 장군 환온(桓溫)이 촉(蜀)을 정벌하게 되자, 도간이 저장해놓은 대나무 쪼가리로 대나무 못을 만들어 배를 만드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동진이 혼란스럽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그래도 100여년을 버틸 수 있었던 데는 도간 같이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이 다 틀려 있다고 하여도 중심을 잡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법이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나라와 사회가 지탱되는데, 지금도 이러한 사람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많은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였다.

2) 두오모 광장 두오모 광장을 중심으로 꽃의 성모마리아 성당(산타마리아 델 피오레)과 산지오바니 세례당 그리고 지오프의 종탑(감빠일레)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수리종인 밀라노 대성당은 1386-1836까지 500년간 건축되었다고 하였다. 뾰족뾰족한 산 모양의 건축물이었다. 돌바닥으로 된 너른 광장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기마상과 사자상이 있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시노리아 광장과 베키오궁과 베키오 다리, 그리고 미켈란젤로 광장까지 모두 걸어서 구경을 할 수 있었다. 주변지역에도 유명한 관광명소가 많다고 하였다.

3) 꿈의 무대 스킨라 극장 두오모(성당) 맞은편에 있는 스킨라 극장은 세계 3대 오페라하우스로 외관은 허술하지만 오페라 내부 시설은 세계최고를 자랑한다고 하였다.

오페라는 매년 11월말에 공연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 오페라하우스에서 지휘를 한 번 하는 것이 모든 지휘자들의 꿈인데 우리나라의 정명훈씨는 1년에 3회 정기적으로 지휘를 한다고 하였다.

오페라하우스 앞 광장에는 과학자, 화가, 건축가, 의사 등 만능 예술인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상이 있었다. 그 밑에는 분야별로 제자 4사람의상이 돌레를 에워싸고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예술가는 고희암 모두 피렌체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라고 하였다. 중국인이 경영하는 신선원관광(新春園餐館)에서 저녁밥을 먹고 Maggio Hotel에 투숙하였다.

4) 세 나라를 방문한 하루관광

오늘(3월 5일)은 세 나라를 방문하면서 각기 다른 음식과 경치를 구경한 뜻깊은 날이 되고 말았다. 스위스의 Golden Hotel에서 아침밥을 먹고 오바공원, 장미공원, 영국공원, 레만호를 거쳐 프랑스로 왔다. 프랑스의 사모니에 있는 페트라식당에서 프랑스 요리로 점심밥을 먹고 몽블랑을 등정 한 후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와서 밀라노성을 거쳐 패션의 거리를 거닐기도 하고 대성당(두오모), 스킨라오 페트라극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상 등을 돌아보는 하루에 세 나라를 다닌 뜻깊은 날이 되었다.

5) 물의 도시 베니스 3월 6일(목) 호텔에서 아침밥을 먹고 베니스로 출발하였다.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서 베로나에서 잠시 쉬며 용병도 보고 Umbria Marke에 들어 이탈리아에서 유명하다는 올리브기름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A4번 고속도로를 달리며 ‘소성녀의 노래’ ‘산타루치아’ 등 이탈리아 민요를 들으며 3시간 30분을 달려 길이가 3.4km나 된다는 자유의 다리를 건너서 베니치아에 도착하였다.

맨스텔에 있는 Alla Fornace식당에서 스파게티로 점심밥을 먹었다. 생선구이, 왕새우구이, 야채, 후식으로 과일과 피자를 끼워서 먹는 것은 맛이 있었다.

유람선을 타고 섬으로 들어왔다. 베니스 즉 베니치아는 해상 도시이자 ‘물의 도시’라고 하였다. 바다로 이어지는 석호 위에 발달한 역사 깊은 항구도시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였다. 9-15세기에 지중해의 상권을 장악했던 베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 회비 ▲ 권현준(부총재) 100만원
- 대의원 회비 ▲ 권성갑(순천) 10만원 ▲ 권영복(강남구) 10만원 소계 20만원
- 찬조금 ▲ 권영철(권준 장군 손자) 10만원
- 합계 130만원**

바로잡음

1. 본지(2011년 10월 1일 제436호) 6면 명사감상 ②鏡浦臺 한시란에 景中開를 鏡中開로 錄波를 綴波로 知五意를 知吾意로 신성이를 신선으로.
2. 4면 권영철(권준 장군 손자) 권憲泰씨로 각 바로 잡습니다.

네치아는 동서 문물의 합류 지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영어로 베니스라고 부르는 베네치아는 이탈리아반도의 동쪽인 아드리아해의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가 약 30만 명이다. 이탈리아 본토에서 약 4km정도 떨어진 120개 정도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0개의 운로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베네치아는 해상 도시로 유명하며 옛날부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해왔으며 동양과 서양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써 변형해 왔다고 한다. 18세기말 나폴레옹에 의해 점령당할 때까지 1,000년간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공화국체제를 지켜오며 번창해왔으며 ‘아드리아해의 여왕’으로 불리며 화려한 시대를 풍미했던 곳이라고 하였다.

근대에 들어서서 본토와의 사이에 철도 다리가 세워지고 1932년에는 자동차 다리가 건설되면서 본토와의 본격적인 교역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종원회비를 납입하여 대종원을 활성화하고 권문의 발전을 기합시다

대종원 임원회비

- 총 재 단 : 100만원
- 총무위원 : 20만원
- 대 의 원 : 10만원
- 계좌번호 : 1면참고(국민은행, 농협)